

우리 신변의 가장 찬란한 ‘별’들

아름다운 연길을 건설하고 있는 노동자들

노동자는 가장 영광스럽다. 수천만명의 노동자들 속에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그도 있다. 노동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외출을 보장하거나, 도시의 환경을 미화하거나, 각종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 또 하나의 뜨거운 실천 속에서 노동으로 노동절을 보내며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그들의 아름다운 순간을 카메라로 기록했다.
/ 연길시당위 선전부 제공



▲ 연길시 빈하공원 록화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수중 (单守忠), 록화미화원, 산동성 덕주시 사람. / 리군광 촬영



▲ 교통통제를 하고 있는 국염여 (鞠艳茹), 보조경찰, 길림성 연길시 사람.



▼ 도시 배수관망 비물과 오수 분류 승급개조공사 빈하공원 구간에서 일하고 있는 조봉 (赵峰), 목공, 흑룡강성 해룬시 사람. / 리군광 촬영



▼ 부르하통하 제방 록화에 나선 왕문장 (王文章), 록화미화원, 길림성 연길시 사람.



▲ 연길시 애단로 북쪽구역에서 택배를 배송하고 있는 주연동 (周延东), 택배배송원, 흑룡강성 할빈시 사람. / 리군광 촬영

▼ 원흥골목 채색타일 부설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왕봉 (王峰), 미장공, 길림성 연길시 사람.



▼ 연길시 원흥골목 채색타일 부설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고전의 (高战义), 지게차공, 길림성 연길시 사람.



▲ 연길거리 석류홍주제유원지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리상배 (李森培), 운수공, 길림성 통정시 사람. / 김홍석 촬영